

# 이동욱 “장르물 연기 처음, 새로운 도전”

OCN ‘타인은 지옥이다’ 31일 첫 방송

배우 이동욱이 OCN 드라마틱 시네마 ‘타인은 지옥이다’로 특별한 연기 변신을 선보인다. 생애 첫 장르물에 도전하는 이동욱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높아진 다.

오는 31일 처음 방송되는 ‘타인은 지옥이다’ (극본 정이도/연출 이창희)는 상경한 청년이 서울의 낯선 고시원 생활 속에서 타인이 만들어낸 지옥을 경험하는 미스터리

작 웹툰을 재해석하여 재탄생된 인물로, 티지와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통해 한 꺼풀씩 베일을 벗을수록 그 정체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상승한다.

마지막으로 이동욱은 “각각의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 고시원이라는 배경이 선사하는 묘한 긴장감, 한번 보면 눈을



리. 이동욱은 뛰어난 화술과 예술적 감성을 지닌 치과의사 서문조 역을 맡았다.

그간 다수의 작품에서 매력적인 변신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이동욱, ‘타인은 지옥이다’ 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드라마 팬들의 뜨거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르물의 명가 OCN과 배우 이동욱의 첫 만남이기 때문.

이에 이동욱은 “장르물 연기는 처음이라 서문조로의 변신은 나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번 작품을 통해 ‘이동욱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전하며 차기작으로 ‘타인은 지옥이다’를 선택한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이어 “서문조는 극중에서 등장 인물들과 가장 많이 섞여있는 캐릭터다. 예전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도움을 주고받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극에 긴장감을 선사한다. 평범한 듯 결코 평범하지 않은 데다가,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지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동명의 원

델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귀띔하며, “‘타인은 지옥이다’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첫 방송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타인은 지옥이다’는 영화와 드라마의 포맷을 결합한 드라마틱 시네마의 두 번째 작품으로, 영화 제작진이 대거 의거투합해 영화의 날선 연출과 드라마의 밀도 높은 스토리를 통해 웹툰이 드 장르물의 탄생을 예고했다. 누적 조회수 8억 뷰를 기록한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제10회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영화 ‘소콜’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개봉한 영화 ‘사라진 밤’으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은 이창희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또 한 ‘구해줘!’을 통해 웹툰 원작을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로 재탄생시켜 주목을 받았던 정이도 작가가 집필을 맡는다. ‘WATCHER(왓쳐)’ 후속으로 오는 31일 오후 10시30분 OCN에서 처음 방송된다.

##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광복절 기념한 스타들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스타들도 SNS에 태극기 이미지를 게재하며 74주년 광복절을 기념했다.

먼저 김소현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극기 이미지를 게재하며 “8.15 광복절”이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김소현은 지난 6월6일 현충일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현충일”이라는 글을 남긴 데 이어 광복절도 기념하면서 팬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배우 이상윤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극기 이미지를 게재하며 이날이 자신의 생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매해 생일이라는 들뜬 마음에 이 날이 얼마나 뜻깊은 날인지 모르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라며 “조금 더 나이가 든 만큼 앞으로는 이 날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하루를 보내볼까 합니다”라고 털어놨다.

또 그는 광복절의 정확한 정의를 전달하며 “좀 더 넓은 의미의 광복절에 대해서는 부끄럽게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네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억해두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마지막으로 빛(光)을 되찾은(復) 날(節)이라고 해



(왼쪽부터) 김소현, 이상윤, 서강준

서 광복절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나마 지금의 우리나라와 우리가 있게 해준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가수 전효성은 MBC 캠페인 터쿠엔터리 ‘기억록’에 피쳐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대한독립의 날입니다. 조심스럽게 독립을 기다리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상상하며 녹음했습니다”라며 “간히 헤아릴 수 없었지만, 희망을 잃지않고 독립의 그 날을 기다리던 많은 분들의 송고한 정신, 희생,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의 글을 덧붙였다.

가수 신성우도 인스타그램에 태극기 이미지를 게재한 후 “74주년 광복절 국가에 헌신한 독립투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잘 지켜겠습니다”

다”라는 글을 올렸다. 배우 윤박도 “#광복절 #대한독립만세 #독도는우리땅”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태극기 이미지를 게재했다. 배우 서강준도 “#광복절 #815”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태극기가 하늘에 휘날리고 있는 이미지를 남겼다.

권혁수는 “그날의 함성 잊지 않습니다”라고 전하며 “나는 천국에 가셔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고,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가까이 춤을 추면서만세를 부를 것이고”라는 안중근 의사의 명언을 함께 적었다. 또 그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 사업에 기부되는 이벤트가 있다고 알렸다. 또 유병재는 광복절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해 나눔의 집에 기부한 내역을 공개해 귀감이 되기도 했다.

## ‘일로만남사이’ 유재석, 이효리 부부 일터연애에 심술

‘일로만남 사이’ 유재석과 이효리가 현실남매 케미를 예고했다.

오는 24일 오후 10시40분 처음 방송되는 노동유희 프로젝트 tvN ‘일로만남 사이’(연출 정효민 이은경)는 유재석이 매회 스타 게스트와 함께 ‘끈적이지 않게, 푹하게, 일로만남 사이끼리’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가 맡겨져 일하는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 시리즈를 연출한 정효민 PD가 tvN에서 처음 선보이는 예능이다.

첫 방송을 앞두고 ‘일로만남 사이’로 유재석과 함께 맡겨져 노동한 이효리와 이상순의 현장 모습이 공개돼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과거 ‘예능남매’로 화제적인 케미를 보여줬던 유재석과 이효리가 그 동안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현실남매’ 케미를 터뜨려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는 “효리야, 어때? 이 프로그램 잘 될 것 같아?”라고 묻는 유재석의 말에 “아니”라며 돌직구를 던지는 이효리의 대답이

담겨 웃음을 선사한다.

이효리가 함꼐 일하며 “(TV에서) 가만히 모닥불만 피워놔도 본디 요즘 세상에, 그냥 가만히 먹기만 해도 본디는 요즘 세상에...”라고 꾸짖하자 유재석은 “힘은 들지만, 땀을 흘리는 보람은 있어”라고 모범생다운 조언을 전한다. 이효리가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지? 포맷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덧붙이자, 유재석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대체 왜 나왔니?”라며 토라져 폭소를 안긴다.

하지만 유재석은 “오빠가 나온다고 하니 나왔지”라는 이효리의 대답에 허를 찔린 듯 “하야 진짜 나는 알다지도 모르겠어”라며 뒀내 감동하는 모습으로 남매 케미 가득한 유희함을 전한다.

특히 유재석은 힘든 노동에 이효리와 이상순의 ‘일터연애’가 겹쳐 더욱 곤혹스러워했다는 후문, 열매 향기를 서로의 코에 맡기고 더운 날씨에도 꼭 붙어 뽀뽀하는 부부의 모습에 유재석은 “야, 너네 일 안하니? 일로만남 사이니까 일만 하고 가자고!”라며



심술을 부리기도. “상순 오빠랑 나랑은 사랑으로 만남 사이라고~”하며 태연하게 받아치는 이효리의 모습에 유재석은 “일보다 이게 더 힘들다”며 한숨을 쉬며, 방송에서 공개될 이들의 모습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있다. ‘일로만남 사이’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40분 tvN에서 방송된다.

뉴스1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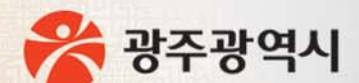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